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아브라함이야기 7 주차 (창 22:1~24:9)
(2014년 12월 14일 - 12월 20일)
(제 1권 7호)

B2B

Mission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1 권-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4 년 12 월 1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833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주당 1 불 (한국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1.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원어해석하기

(1 절) 이 일들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וַהֲאֱלֹהִים נִסָּה אֶת־אַבְרָהָ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아브라함아. (אַבְרָהָם)

그가 대답했습니다. (וַיֹּ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יִנְנִי)

(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지금 취하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קַח־נָא אֶת־בְּנֶךָ אֶת־יִחְזָקְךָ אֲשֶׁר־אַהַבְתָּ אֶת־יְצִחָק וְלֶדְ-לְךָ אֶל־אֶרֶץ הַמֹּרְיָה)

번제로 드리라! 그를... 내가 네게 말할 한 산, 그곳에서

(וְהַעֲלֵהוּ שָׁם לְעֹלָה עַל אֶחָד הַהָרִים אֲשֶׁר אָמַר אֱלֹהִים)

(3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וַיִּשְׁכַּם אַבְרָהָם בְּבֹקֶר וַיִּחַבֵּשׁ אֶת־חֲמֹרוֹ)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했습니다. (וַיִּקַּח אֶת־שְׁנֵי נְעָרָיו אֹתוֹ וְאֵת יְצִחָק בְּנֵוֹ)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וַיִּבְקַע עֵצִי עֹלָה וַיִּלְךָ אֶל־הַמָּקוֹם אֲשֶׁר־אָמַר־לוֹ הָאֱלֹהִי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창세기 22 장은 유대전통에서 ‘아케다’(Akedah)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이삭을 결박하여”에서 ‘결박하다’(עקד)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 장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3 일에 걸쳐 본격적으로 창세기 22 장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어느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아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1 절 말씀은 “이 일들이 있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후 이일이 일어났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사건이 많은 사건들이 있을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의 사건들과 인과관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일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20 장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 장부터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

- 새 생명을 잉태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20 장).
-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하였다 (21:1~7).
- 언약이 아닌 욕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다 (21:8~21)
-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언약식을 행하다 (21:22~34)

“이 일들이 있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표현, 즉 “이 일들이 있을 후”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세 번 (창 22:1, 39:7, 40:1) 등장합니다. 모두 내용상 반전이 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2 장 말씀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반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부분에 “이 일들이 있을 후”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싸’ (נסא)의 피엘(Piel) 용법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군대에서]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의지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와같이 독자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2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세가지 명령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취하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이삭 개인의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취하라”라고 번역된 ‘라카’ (לקח)는 어떤 물건을 취하거나 땅을 빼앗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번역에 이 부분을 ‘동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상 이삭은 희생될 제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오직 하나, 이삭이라고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이 이땅에 오실 때에는 그를 희생제물로 드리기를 위함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삭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갈데아 우르에서 불러 낼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가라...내가 지시할 땅으로!” (창 12:1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말할 한 산으로”라고 명령하십니다. 둘 모두에게 특징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번제’로 번역된 ‘오라’ (עֹלָה)는 ‘올려 드리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번제란 그냥 불을 태우는 제사의식이 아닌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끗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복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사이의 화복은 곧 택한 백성 모두와의 화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삭은 모든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택한 백성을 위해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은 단 한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일찍 일어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낮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낼 때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창 21:14). 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행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침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 남종 둘과 이삭을 취했다 → 번제의 나무들을 쪼갰다 → 일어났다 →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갔다. 그는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사캬’ (סַכָּ)의 Hiphil 형입니다. 이 의미는 그가 의지적으로 아침일찍 일어났다는 것 보다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에 안장을 단단하게 묶고, 아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갰 후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삭은 철저히 당하는 입장입니다. 이삭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하는대로 묵묵히 행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내 아들이 하나님이 어린양을 준비하실 것이다(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4~10)

4.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원어해석하기

- (4 절)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בְּיוֹם הַשְּׁלִישִׁי וַיֵּשָׂא אַבְרָהָם אֶת־עֵינָיו וַיֵּרָא אֶת־הַמָּקוֹם מֵרָחֵק)
- (5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אֶל־נְעָרָיו)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어라. (שְׁבוּ־לָכֶם פֹּה עִם־הַחֲמֹר)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וְאֲנִי וְהַיָּעַר גֵּלְכָה עַד־כָּה)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וְנִשְׁתַּחֲוֶה)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וְנָשׁוּבָה אֵלֵיכֶם)
- (6 절)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וַיִּקַּח אַבְרָהָם אֶת־עֵצֵי הָעֵלֶה וַיִּשֶׂם עַל־יִצְחָק בְּנוֹ)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וַיִּקַּח בְּיָדוֹ אֶת־הָאֵשׁ וְאֶת־הַמַּאֲכָלֹת)
그들 둘은 함께 갔습니다. (וַיֵּלְכוּ שְׁנֵיהֶם יַחְדָּו)
- (7 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צְחָק אֶל־אַבְרָהָם אָבִיו)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 (הֲנִנִי בְּנִי)
이삭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הֲנִנֶה הָאֵשׁ וְהָעֵצִים)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וְאֵינֶה הַשָּׂה לְעֵלֶה)

- (8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וַיֹּאמֶר אֱלֹהִים יְרֵאֵה-לוֹ הַשָּׂה לְעֹלָה בְּנִי וַיֵּלֶכְוּ שְׁנֵיהֶם יחדו.)
- (9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וַיָּבֹאוּ אֶל-הַמְּקוֹם אֲשֶׁר אָמַר-לוֹ הָאֱלֹהִים)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ן שָׁם אַבְרָהָם אֶת-הַמִּזְבֵּחַ) 나무들을 정돈하여 놓았습니다. (וַיַּעְרֹךְ אֶת-הָעֵצִים)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וַיַּעֲקֹד אֶת-יִצְחָק בְּנֹו) 그는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וַיִּשֶׂם אֹתוֹ עַל-הַמִּזְבֵּחַ מִמַּעַל לְעֻצִּים)
- (10 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וַיִּשְׁלַח אַבְרָהָם אֶת-יָדוֹ)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וַיִּקַּח אֶת-הַמֶּאֱכָלֶת לְשַׁחֵט אֶת-בְּנֹ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집을 떠난지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바라 보았습니다. 함께 온 종들을 그곳에 남겨 둔 채 번제를 위한 나무를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 제물(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릴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무언가 이상한 듯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4 절을 읽으십시오.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일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삼일간의 여정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눈을 들어” 로 표현된 곳을 보면 모두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눈을들어” 동쪽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13:10).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18:2). 22 장 13 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뿔이 걸린 숫양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여행길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로 하여금 모리아 산 어느 곳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남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세가지 계획은 어떤 한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자신의 계획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들은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진행되었습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이삭은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를 잡을 칼과 그를 불태울 불은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예수님과 같은 희생양이라면, 예수님을 끌고가는 형의 집행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결국 주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손에 칼과 불을 든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읽으십시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 ‘선택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에레’(יֵרֶא)는 원래 ‘보다’(see)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준비하시리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택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적합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숫양이 그곳에 있었고, 이삭이 제물로 올라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둘 중에 숫양을 희생제물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숫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없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합니다. 이 순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⁴⁷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¹⁸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¹⁹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17-19).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전혀 해석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무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여호와 이레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1~19)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1 절) 그러나,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부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 אֱלֹהִים מִלְאָךְ הַשָּׁמַיִם הוֹדוּ מִן־הַשָּׁמַיִם)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אֲבְרָהָם אֲבְרָהָם)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יִנְנִי)

(12 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뻗지 말아라. (אַל־תִּשְׁלַח יָדְךָ אֶל־הַנְּעָר)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וְאַל־תַּעַשׂ לוֹ מְאוּמָ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כִּי עַתָּה יָדַעְתִּי כִּי־יְרֵא אֱלֹהִים אֶתָּ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וְלֹא חִשַּׁבְתָּ אֶת־בְּנֶךְךָ אֶת־חַיִּיךָ מִמֶּנִּי)

- (13 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וַיִּשָּׂא אַבְרָהָם אֶת-עֵינָיו וַיֵּרָא)
 수풀 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וַהֲנִה-אֵיל אַחַר נְאֻחוֹ בְּסֹבֵב בְּקִרְנָיו)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았습니다. (וַיֵּלֶךְ אַבְרָהָם וַיִּקַּח אֶת-הָאֵיל)
 그는 그의 아들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וַיַּעֲלֵהוּ לְעֹלָה תַּחַת כְּנֹוֹ)
 (14 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וַיִּקְרָא אַבְרָהָם שְׁם-הַמָּקוֹם הַהוּא יְהוָה יֵרֵאָה)
 오늘날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 하듯이,
 (אֲשֶׁר יֵאמַר הַיּוֹם בְּהָר יְהוָה יֵרֵאָה)
 (15 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 מֵלֶאדָּה יְהוָה אֶל-אַבְרָהָם שְׁנִית מִן-הַשָּׁמַיִם)
 (16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였다. (כִּי נִשְׁבַּעְתִּי נְאֻם-יְהוָה)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כִּי יַעַן אֲשֶׁר עָשִׂיתָ אֶת-הַדָּבָר הַזֶּ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וְלֹא חָשַׁכְתָּ אֶת-בְּנֶךָ אֶת-יְחִידְךָ)
 (17 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כִּי-בָרַךְ אֲבָרְכֶךָ)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וְהִרְבָּה אֲרֻבָּה אֶת-יִרְעֶךָ כְּכּוֹכְבֵי הַשָּׁמַיִם וְכַחֹל אֲשֶׁר עַל-שֹׁפֶת הַיָּם)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 할 것이다. (וַיִּרַשׁ יִרְעֶךָ אֶת שַׁעַר אֹיְבֹיו)
 (18 절) 또,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וְהִתְבָּרְכוּ בְּיִרְעֶךָ כָּל גּוֹי הָאָרֶץ)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로서, (עַקֵּב אֲשֶׁר שָׁמַעַתָּ בְּקוֹלִי)
 (19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וַיָּשָׁב אַבְרָהָם אֶל-נַעֲרָיו)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וַיִּקְמוּ וַיֵּלְכוּ יַחְדָּו אֶל-בְּאֵר שָׁבַע)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וַיֵּשֶׁב אַבְרָהָם בְּבְאֵר שָׁבַע)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아들을 잡고 칼로 그를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불러 그의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 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이삭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브엘세바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두번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두번의 부름은 이 에피소드의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개입을 하셨을까요?

12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두가지를 써보세요.

천사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없었다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고자 칼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12 절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앞 부분에서 다른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불이 걸려 있는 한 숫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곳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삭이 제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우리와 같은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선택하셔서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숫양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집에 가만이 앉아 있는데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은 죽음과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이삭은 죽었다가 산 몸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몸이지요.

14 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유래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 ‘라아’ (ראה)의 수동형을 사용하여 ‘나타나다’ ‘선택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

나눔이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인류를 위해 제물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으십시오.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가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와 순종의 결과로 언약이 성취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준비하셔서 자신이 행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의 의로 전가하고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 (수요일)

오늘의 본문 (22:20~23:2)

- 20.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 21.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므엘과
-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더라
- 23:1 사라가 일백이십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원어해석하기

(20 절) 이 일이 있는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וַיֵּגֵד לְאַבְרָהָם לְאִמּוֹ)

보십시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הֲנֵיהּ יְלֵדָה מְלָכָה גַם־הִוא בָּנִים לְנַחֲוֹר אַחִיָּהּ)

(21 절) 그의 첫째 아들은 우스,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אֶת־עוֹזַן בְּכוֹרוֹ וְאֶת־בוֹז אָחִיו וְאֶת־קְמוּאֵל אָבִי אָרָם)

(22 절) 게셋과 하소, 빌다스와 이들랍, 그리고 브두엘이었습니다.

(וְאֶת־בְּשׂוֹד וְאֶת־חִזּוֹ וְאֶת־פְּלִדָּשׁ וְאֶת־יִדְדֵּלְךָ וְאֶת־בְּתוּאֵל)

(23 절)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וּבְתוּאֵל יָלַד אֶת־רִבְקָה)

이 여덟 명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다.

(שְׁמֹנֶה אֵלֶּה יְלֵדָה מְלָכָה לְנַחֲוֹר אָחִי אַבְרָהָם)

(24 절) 나홀의 첩,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וּפִילְגֶשׁוּ וּשְׁמָהּ רְאוּמָה)

그녀도 또한 데바와 가함,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습니다.

(וַתֵּלֵד גַּם־הִוא אֶת־טֹבַח וְאֶת־גֻּחַם וְאֶת־תַּחַשׁ וְאֶת־מַעֲכָה)

(23 장 1 절) 사라는 127 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햇수입니다.

(וַיְהִיו חַיֵּי שָׂרָה מֵאָה שָׁנָה וְעֶשְׂרִים שָׁנָה וּשְׁבַע שָׁנִים שְׁנַיִם חַיֵּי שָׂרָה)

(2 절) 사라는 기랏아르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וַתָּמָת שָׂרָה בְּקָרְיַת אַרְבַּע הוּא חֶבְרוֹן בְּאֶרֶץ כְּנָעַן)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애통하고, 그녀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וַיָּבֹא אַבְרָהָם לְסֹפֵד לְשָׂרָה וּלְבִכְתָּ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후 이야기는 갑자기 갈대아 우르 지방에 남아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리브가입니다. 동생 나홀의 가문에서 앞으로 이삭의 며느리가 되어 약속의 자녀를 이룰 리브가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장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있던 한 여인, 사라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22 장 20 절부터 24 절까지를 읽어 보십시오. 나홀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처는 밀가이고,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르우마 였습니다. 나홀은 밀가와 첩 르우마를 통해 몇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까?

‘열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족속의 ‘완전 수’ 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자신의 당대에 ‘열 둘’이라는 숫자를 완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당대에 ‘열 둘’이라는 숫자를 완성합니다 (창 25:16).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손자인 야곱의 세대에서야 ‘열 둘’을 완성합니다.

23 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입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인 라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리브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리브가의 탄생을 이렇게 상세한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까요?

리브가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녀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나홀의 열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밀가(왕비라는 뜻을 지님)가 자신의 남편 나홀에게 나온 첫아들이 우스(Uz)입니다. 이 우즈는 욥기에 다시 등장하는데 만약 이 우즈가 정착하여 공동체를 이룬 곳이 우즈라는 땅이라면 욥이 그 곳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아브라함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태어난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3 장 1 절을 읽으십시오.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27 세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가 90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 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 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라는 아들 이삭이 장가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며느리 리브가가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사라가 죽은 곳은 기랏아르바(קִרְיַת אֲרָבָה)입니다. 헤브론이라 이름하는 성입니다. 기랏이라는 말은 성, 도시라는 의미가 있고, 아르바는 사방(동서남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당시에 아마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드리는 시험을 받을 당시까지 브엘세바에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23 장 2 절을 보면 이 땅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명칭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동행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사십년을 광야에서 헤메는 신세가 된 바로 문제의 그 땅입니다(민 13:22~33 참조). 당신이 그 헤브론 땅 거민을 두려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의 하나라 가정을 한다면, 이 사라의 죽음과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영원히 자신과 후손의 소유로 하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헤브론 땅은 결국 갈렙에 의해 정복당합니다(수 15:13~19 참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 다윗왕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1](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3:3~11)

3. 그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5.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 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하기를 원하노라
10.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 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하소서

원어해석하기

(3 절) 아브라함이 그녀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ם אַבְרָהָם מֵעַל פְּנֵי מֵתוֹ וַיִּדְבֹר אֶל-בְּנֵי-חֵת לֵאמֹר)

(4 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גֵּר-וְתוֹשֵׁב אָנֹכִי עִמָּכֶם)

당신들 중에서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기를 바랍니다. (תָּנוּ לִי אֶחָזַת-קֶבֶר עִמָּכֶם)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묻게 하십시오. (וְאֶקְבְּרָה מִתִּי מִלְפָּנַי)

(5 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עֲנוּ בְנֵי-חֵת אֶת-אַבְרָהָם לֵאמֹר לוֹ)

(6 절)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שָׁמְעֵנוּ אֲדֹנָי)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입니다. (נְשִׂיא אֱלֹהִים אַתָּה בְּתוֹכֵנוּ)

우리의 매장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בְּמִבְחָר קֶבְרֵינוּ קֶבֶר אֶת-מֵתֶךָ)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매장지에 당신 죽은 자를 묻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אִישׁ מִמֶּנּוּ אֶת-קֶבְרֹוֹ לֹא-יִקְלָה מִמֶּךָ מִקֶּבֶר מֵתֶךָ)

(7 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사람들,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וַיִּקָּם אַבְרָהָם וַיִּשְׁתַּחוּ לְעַם-הָאָרֶץ לְבְנֵי-חֵת)

- (8 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דְבַר אֲתָם לְאמֹר.)
 만약 내 앞에 나의 죽은 자를 묻는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אִם-יֵשׁ אֶת-נַפְשְׁכֶם לְקַבֵּר אֶת-מַתִּי מִלְּפָנַי)
 내 말을 듣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שְׁמַעוּנִי וּפְגַעוּ-לִי בְעֶפְרוֹן בֶּן-צִחָר),
 (9 절) 그에게 속한, 그의 땅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게 하십시오.
 (וַיִּתֵּן-לִי אֶת-מַעְרַת הַמְּכַפְלָה אֲשֶׁר-לוֹ אֲשָׁר בְּקִצֵּה עֲדָהוּ)
 당신들 앞에서, 그가 제 값을 받고, 나에게 그 매장할 소유지를 주게 하십시오.
 (בְּכֶסֶף מְלֵא יִתְּנֶנָּה לִי בְּתוֹכְכֶם לְאַחֲזַת-קְבָר)
 (10 절) 에브론은 헛 족속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וַעֲפְרוֹן יָשָׁב בְּתוֹךְ בְּנֵי-חֵט)
 헛 족속에 에브론은 헛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
 하며 말했습니다. (וַיַּעַן עֲפְרוֹן הַחֵטִי אֶת-אַבְרָהָם בְּאָזְנֵי בְנֵי-חֵט לְכָל בְּאֵי שְׁעַר-עִירוֹ לְאמֹר.)
 (11 절)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לֹא-אֲדֹנָי שְׁמַעֲנִי)
 그 땅은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הַשָּׂדֶה נְתַתִּי לָךְ)
 그리고, 그안의 굴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וְהַמְעָרָה אֲשֶׁר-בּוֹ לָךְ נְתַתִּיהָ)
 내가 내 동족들 눈 앞에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לְעֵינַי בְּנֵי-עַמִּי נְתַתִּיהָ לָךְ)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קְבֹר מֵתָךְ)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당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인 헛족속과 장지를 놓고 거래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헛족속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땅의 소유권자인 헛족속은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땅값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즈음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3 장 전체는 다음과 같이 일종의 샌드위치 (Inclusio)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액자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다 (1-2 절)

사라의 장례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다 (3-18 절)

아브라함의 제안과 헛족속의 첫 반응 (3-6 절)

아브라함의 구체적 제안(에브론의 땅)과 땅주인 에브론의 반응 (7-11 절)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을 거래함 (12-16 절)

막벨라 굴과 앞의 밭, 사방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다 (17-18 절)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지내다 (19-20 절)

1-2 절은 앞서 살펴 보았으므로 오늘은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 일부만 살펴보고 합니다 (3-11 절). 이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식 가운데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3-4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족속 가운데 잠시 머무는 사람,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헤브론은 이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창 13:14-17),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지금 거래를 한 그 헤브론의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창 13: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후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사백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 이후에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 15:13-14). 그 때야 비로소 이 땅이 택하신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5-6 절을 읽으십시오.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당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생각을 하였을까요? 훗날 전개된 역사 속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7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두머리로 행세합니까? 아니면 나그네로 행세를 합니까?

왜 그가 우두머리가 아닌 나그네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8-11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신 원하는 땅의 소유주인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의 땅을 팔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기서 헷 족속 에브론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즉, 땅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사 된 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임을 입증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무상으로 쓰라고 한 땅을 값을 치루고 산 것은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사리에 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중에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의 첫 부인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장사를 지낸 곳입니다 (창 49:30, 50:13 참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땅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2](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3:12~20)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13.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러 수목을 다
18.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2 절)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וַיִּשְׁתַּחוּ אַבְרָהָם לְפָנָי עַם הָאָרֶץ.)

(13 절) 그는 그 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וַיִּדְבַר אֶל-עֶפְרוֹן בְּאָזְנֵי עַם-הָאָרֶץ לֵאמֹר)

만약 당신이 나를 합당히 여긴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אָךְ אִם-אַתָּה לֹו שְׂמַעְנִי)

나는 그 땅의 값을 줄 것이니, 나로부터 그것을 받으십시오.

(וַתֵּתֵי כֶסֶף הַשְּׂדֵה קַח מִמֶּנִּי)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자를 그곳에 묻을 것입니다. (וַאֲקַבְרָה אֶת-מֵתִי שָׁמָּה)

(14 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עַן עֶפְרוֹן אֶת-אַבְרָהָם לֵאמֹר לוֹ)

(15 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אָדֹנָי שְׂמַעְנִי)

그 땅은 은 400 세겔입니다. (אָרֶץ אַרְבַּע מֵאֹת שְׁקֶל-כֶּסֶף)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כִּינִי וְכִינָךְ מֵה־הָוָ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וְאַתְּ-מֵתְךָ קַבֵּר)

(16 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들었습니다. (וַיִּשְׁמַע אַבְרָהָם אֶל-עֶפְרוֹן)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그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וַיִּשְׁקַל אַבְרָהָם לְעֶפְרוֹן אֶת-הַכֶּסֶף)

그가 헷 족속이 듣는 가운데 말한대로, (אֲשֶׁר דִּבֶּר בְּאָזְנֵי כְּנִי-הַת)

-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 세겔을, (אַרְבַּע מֵאוֹת שֶׁקֶל כֶּסֶף לְסֹחֵר)
- (17 절) 마므레 앞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땅은 결정되었습니다.
(וַיִּקֶם שָׂדֵה עֶפְרוֹן אֲשֶׁר בְּמִכְפֵּלָה אֲשֶׁר לְפָנַי מִמְרָא)
(그 땅은) 에브론의 땅과 그 땅의 굴, 그리고 그 땅 주위에 둘러 있는 모든 나무인데,
(הַשָּׂדֵה וְהַמְעָרָה אֲשֶׁר-בּוֹ וְכָל-הָעֵץ אֲשֶׁר בְּשָׂדֵה אֲשֶׁר בְּכָל-גְּבוּלוֹ סָבִיב)
- (18 절) 그의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가운데,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לְאַבְרָהָם לְמִקְנָה לְעֵינַי בְּנֵי-חַת כָּל בְּאֵי שַׁעַר-עִירוֹ) (결정되었습니다.)
- (19 절) 이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헤브론) 앞 막벨라 땅의 굴에 묻었습니다.
(וְאַחֲרָיו כִּן קָבַר אַבְרָהָם אֶת-שָׂרָה אִשְׁתּוֹ אֶל-מְעַרַת שָׂדֵה הַמִּכְפֵּלָה עַל-פְּנֵי מִמְרָא הוּא)
(חֲבֵרוֹן בְּאֶרֶץ כְּנָעַן)
- (20 절)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굴은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וַיִּקֶם הַשָּׂדֵה וְהַמְעָרָה אֲשֶׁר-בּוֹ לְאַבְרָהָם לְאַחֲזַת-קָבַר מֵאֵת בְּנֵי-חַת)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땅주인인 에브론은 마지못해 땅의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굴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몸을 굽혔습니다. 7 절에 이어 두번째 몸을 굽힌 것입니다. 당시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머리를 굽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감사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그네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3 절부터 15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땅 값을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마지못해 땅값을 400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400 세겔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에브론이 적정한 가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적게 받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상인들이 통용하는” 즉, 상거래에서 통용하는 은 사백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통용하는”이라는 말은 당시 상거래 기준에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 세겔을 정확하게 달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7 절과 18 절을 읽으십시오. 17 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산 땅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니까?

18 절에는 아브라함으로 땅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인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데에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 32 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숙부의 땅을 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2 장 12 절에는 증서를 만들고 증서에 인친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에브론이 죽은 후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찾게되는 유다족속들에게는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9 절과 20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래를 묻었습니다. 사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삭을 낳은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불임이었어야 하는 이유, 그가 두번이나 남편에 의해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져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구속의 의미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보면서 진정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래의 죽음 앞에서 사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택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나의 땅 나의 족속에게 가라(토요일)

오늘의 말씀 (창 24:1~9)

1.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놓으라
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좇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 (1 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וַאֲבְרָהָם זָקֵן בָּא בְיָמָיו)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הוָה בָּרַךְ אֶת-אֲבְרָהָם בְּכֹל)
- (2 절)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אֶל-עֶבְדוֹ זָקֵן בֵּיתוֹ הַמְשִׁיל בְּכָל-אֲשֶׁר-לוֹ)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어라. (שִׁים-נָא יָדְךָ תַּחַת יְרֵכִי)
- (3 절)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네가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וַאֲשֶׁר-בִּיעָצָה בֵּ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וְאֱלֹהֵי הָאָרֶץ אֲשֶׁר)
- (4 절)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을 것과,
 (לֹא-תִקַּח אִשָּׁה לְבָנִי מִבְּנוֹת הַכְּנַעֲנִי אֲשֶׁר אֲנֹכִי יוֹשֵׁב בְּקִרְבּוֹ)
 나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을,
 (כִּי אֶל-אֲרָצִי וְאֶל-מוֹלְדֹתַי תֵּלֵךְ וְלִקְחָתָּ אִשָּׁה לְבָנִי לְיִצְחָק)
- (5 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וֹ הָעֶבֶד)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אוֹלֵי לֹא-תֵאבְדָה הָאִשָּׁה לְלִבָּת אַחֲרַי אֶל-הָאָרֶץ הַזֹּאת)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나왔던 땅으로 데려가야만 합니까?
 (הֲהִשָּׁב אֲשִׁיב אֶת-בְּנִי אֶל-הָאָרֶץ אֲשֶׁר-יָצָאתָ מִשָּׁם)

- (6 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אַבְרָהָם)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הַשְּׂמֵר לְךָ פֶּן־תָּשִׁיב אֶת־בְּנֵי שְׁמָה)
- (7 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יְהוָה אֱלֹהֵי הַשָּׁמַיִם)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터, 그리고 내 족속으로 부터 나를 택하신,
 (אֲשֶׁר לָקַחְנִי מִבֵּית אָבִי וּמֵאֶרֶץ מוֹלְדוֹתִי)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וְאֲשֶׁר דִּבְרַר־לִי)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맹세하신,
 (וְאֲשֶׁר נִשְׁבַּע־לִי לֵאמֹר לְזַרְעֶךָ אֶתְּן אֶת־הָאָרֶץ הַזֹּאת)
 그가 그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낼 것이다. (הוּא יִשְׁלַח מַלְאָכּוֹ לְפָנֶיךָ)
 너는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וְלָקַחְתָּ אִשָּׁה לְבְנֵי מִשְׁפָּחָם)
 (וְאִם־לֹא תֵאָבֵד הָאִשָּׁה לְלֶכֶת אֶתְּרִיךָ)
- (8 절)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וְנִקִּיתָ מִשְׁבַּעְתִּי זֹאת)
 너는 나와 이 맹세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רַק אֶת־בְּנֵי לֹא תָשִׁיב שְׁמָה)
 오직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라.
- (9 절) 그 종이 그의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넣었습니다.
 (וַיִּשֶׁם הָעֶבֶד אֶת־יָדָיו תַּחַת יְרֵךְ אַבְרָהָם אֲדֹנָיו)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וַיִּשְׁבַּע לוֹ עַל־הַדָּבָר הַזֶּ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른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여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당시 이삭은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 그에게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도,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들이나 주변사람들은 아들을 쉽게 얻고 가문을 일구었는데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가 되어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밤사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2절부터 4절을 읽으십시오. 3절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라고 명령한 내용 두가지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고 굳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고 종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신명기 7:1~4 참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신7:14).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내 답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종은 그러한 질문을 하였으며 왜 아브라함은 “내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6절), “오직 내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라”(8절)라고 당부합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빛)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돌아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을 잘 읽어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시드기야 왕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인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상 그들의 역사는 그것으로 마감됩니다. 갈대아인의 왕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대하 36:17)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사였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살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이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당신의 고향입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